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285	218	165	286
(103위 순교성인)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주의 잔치)	(순교자의 믿음)

제 1독서 | 지혜서 3,1-9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화답송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좌)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우)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좌)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우)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독서 | 로마서 8,31-39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기도 남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9,23-26

영성체 후 묵상 |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영원한 참평화를 누리고 있는 순교자들에게서 불사의 희망을 배우시다.

Today's Gospel, <Luke 9,23-26>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 wish to come after me, let them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daily and follow me. For those who want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and those who lose their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For what does it profit them if they gain the whole world but lose or forfeit themselves? Those who are ashamed of me and of my words, of them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when he comes in his glory and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목상거리: 십자가의 논리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논리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1코린 1,23). 예수님의 삶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것만 보아도 벌써 예수님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취약함’을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앞서 말한 하느님의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시지만, 아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해를 끼치면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가르침과 삶은 그러한 어리석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생활 3년 동안 공들여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의 배신으로 스승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실패하신 듯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그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며 빌라도에게 큰소리로 외칩니다. 인간적으로 말해, 그분이 슬기롭고 뛰어난 지도자였다면 그 백성에게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리석음은 십자가의 논리였습니다. 능력 있는 스승이요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당신을 받들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십자가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였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 (1코린 1,24)였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The Archdiocesan Assembly will be a gathering of the Catholic Church in the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This Archdiocesan Assembly will be focused on celebrating the Year of the Holy Spirit, whilst also exploring new opportunities for evangelisation and synodality in the life and mission of our Church.

In many ways, the Archdiocese is walking along a similar path as the first Apostles. It took time for the early Church to discern and declare: "It seemed good to the Holy Spirit and to us" (Acts 15:28)

All are invited to join us on our pilgrim journey of discernment.

Archdiocesan Assembly Core Information

We invite all to prayerfully discern: 'What seems good to the Holy Spirit and to us in the areas of encounter, discipleship and mission?'



When?

The Archdiocesan Assembly will be held from: Friday 18 (5:00pm) to Sunday 20 (12:30pm) October, 2024



Where?

The Archdiocesan Assembly will be offered at 'Hubs' across the Archdiocese, including: Canberra, Goulburn, Young, Narooma and Cooma. There will also be a 'digital' experience offered to all in the Archdiocese.



Who?

The Archdiocesan Assembly is a gathering of leaders and members of our Parishes, Catholic Schools, Catechists, Chancery, movements, ministries, communities and organisations.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over 600 people gathering in-person across the various Assembly Hubs and many more online.

공지 사항

1. 견진성사

- * 견진성사 일시: 9월 29일(주일), 오후 3시
- * 크리스토퍼 대주교님께서 영어 미사 집전
- * 다음주에 견진성사를 받게되는 분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Zoom을 통하여 목주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가장 훌륭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회의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하여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목주기도는 강생의 신비와 인간 구원에 중심을 둔 복음적인 기도로서 명백히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목주기도의 고유한 특징인 성모송의 연속적인 반복은 그리스도께 대한 끊임없는 찬미입니다. 천사의 인사와 '태종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루카 1.42)고 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인사는 궁극적으로 모두 그리스도께 드리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성모송의 반복은 신비에 대한 관상을 열어 주는 씨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성 요한 바오로 6세 -

* 목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로 그 신비의 본질과 동화되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은 반복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신비에서 열 번씩 반복되는 성모송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겉으로만 보면, 무미건조하고 따분한 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주기도를,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느낌은 언제나 새로운 표현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 붓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기도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

| 미사 참례자 수 |

9월 8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51명
9월 15일	유아·청소년: 25명	성인: 58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9월 22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다음주 (9월 29일)	요한반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9월 22일)	마태오반
다음주 (9월 29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9월 14일 ~ 9월 20일)

봉 헌 금	\$357				
교 무 금	\$430				
권묘순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최현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